

축산업계

소식

농림수산부, 농림부로 개칭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제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수산관계 업무는 새로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일 오전 정부 제2청사 3동에서 강운태 농림부장관과 조일호 차관을 비롯한 본부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가축전염병 발생주의보

농촌진흥청은 지난 21일자로 올해 국내에선 처음 나타난 가금인플루엔자와 기생충성 질병인 류코사이토준병에 대한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 다 음 -

가금인플루엔자

가금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국내 발생이 없었던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에서 금년 3월에 최초로 발생한 이래 5월에 전라북도 정읍, 7월에 경상북도 영천에서 계속 발생하여 5개농장 10만여수의 닭을 모두 살처분 하였고 부근 농장 및 관련부화장에 대하여도 역학조사를하여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활동이 왕성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각 농장에서 완벽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지역에도 발생이 확대되어 그 피해가 매우 커질것으로 우려되니 가금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 신속한 신고와 아울러 양계장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파경로

○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봄, 가을의 기온에서는 오랫동안 야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겨울철의 영하온도에서는 장기간 사멸하지 않고 존재하므로 오염된 계분, 관리기구, 사람, 차량 등에 의하여 쉽게 전파된다.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의 똥 1그램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 바이러스의 양으로 닭 10천마리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다.

○ 알을 통해서 전염은 되지 않으나 감염된 닭의 똥이 알에 묻게 되면 부화장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염되지 않은 다른 종란을 오염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염된 양계장으로부터 종란을 수집한 부화장은 필히 가금인플루엔자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증상과 진단

○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으며 감염이 되어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야외 농장에서 감염시 8~80% 이상이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낸다.

○ 임상소견으로는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고기수염과 비술의 부종 및 청색증, 두부의 부종, 장염으로 인한 설사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산란계에서는 뚜렷한 증상 없이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산란이 중지되기도 하며 때로는 산란율이 바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기 쉽다.

○ 부검소견으로는 심장, 선위, 정관 및 지방조직 등에서 전반적인 출혈이 관찰되니 급성으로 진행될 경우 특징

적인 병변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이러한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 등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형에 따라 다르며, 특히 임상증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재하고 있는 뉴캐슬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쉽지 않다.

3. 다른질병과의 감별

○ 설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콕시듐증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병의 경과가 3~5일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콕시듐약제 투여시 치료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란을 하는 닭의 경우 산란을 저하가 콕시듐에 감염된 닭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쉽게 감별할 수 있다.

○ 녹색설사, 호흡기, 출혈소견, 급격한 산란율감소로 인해 뉴캐슬병으로 진단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발생된 예에서 모두 처음에는 임상수위사에 의하여 뉴캐슬로 진단이 되었다. 그러나 뉴캐슬병에 대한 생독백신, 오일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닭이 죽거나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나면 일단은 가금인플루엔자로 의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완벽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의 실험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실험실 검사는 실험장소의 제한은 있으나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각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감별할 수 있다.

4. 국내발생의 특징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예는 모두 육용종계였으며 계사의 환경상태가 좋지 않았던 곳에서 먼저 발생을 하였다. 또한, 폐사는 공통적으로 20% 내외였으며 산란율의 감소는 급격히 떨어져 심한 경우는 100%까지 이르렀으나 대부분 40%이상의 산란율 감소가 있었다.

○ 폐사는 3~5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였으며 흔히 산란계가 감보로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종모양의 폐사곡선을 그렸으며 폐사가 처음 나타난 계사에서 다음계사로는 약 2~4일의 간격을 두고 전파를 하였다.

○ 폐사가 끝나도 산란율의 저하는 계속되고 최초폐사로 부터 2주이상이 지난 다음 산란율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2~3주 지난 후 정상적인 산란율을 나타냈다.

○ 그 외의 임상증상으로는 벼슬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녹색설사를 동반하는 장염을 보일때가 있

어 흔히 콕시듐증이나 뉴캐슬병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

5. 예방대책

○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의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와 같이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없으며, 발생초기에는 병원성이 약하더라도 언제든지 많은 폐사를 유발하는 강독형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백신을 닭에게 접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단방역은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효과적이므로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 최초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의 국내 박멸을 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양계장 전제군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전파원을 없애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다.

6. 양계농가에서 하여야 할 일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양계장도 방문하지 않는다.

○ 양계장에 출입하는 사료 및 닭 운반차량이 다른 양계장에 출입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계사와 양계도구 특히 난좌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한다.

○ 다른질병의 백신접종팀이 양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다른 양계장에서 백신접종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의 이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 중병아리의 구입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육추기록을 면밀히 살펴 육추중 폐사유무나 가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의 경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 양계장의 구충, 구서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반드시 계군이 올인 올 아웃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양계농가는 가금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병든 닭은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닭 류코사이토준 병

닭 류코사이토준병은 닭과 오리, 칠면조, 거위 등 가금의 혈구내에 류코사이토준이라는 일종의 원충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기생충성 질병으로서 사람에서는 말라리아병과 매우 유사하며 여름철이 되면 양계장 주변에 서식하는 닭겨모기가 이 병에 걸린 닭의 피를 빨 다음 다시 다른 건강한 닭의 피를 빨 때 원충을 옮기게 되므로 발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도에 처음 확인된 이래 전국 일원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나 1985년 9월초에 영남지역의 양계장에서 심한 산란 감소 및 급사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거의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기간에 걸쳐 대량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 이병에 대해 강력한 항원충 효과를 나타내었던 피리메타민제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항콕시듐 약제 및 몇가지 종류의 설파제가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피리메타민제보다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 병의 발생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모든 양계농가에서는 방역조치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닭겨모기를 통하여 닭의 몸속에 들어 온 원충은 일차적으로 혈관을 따라 침입하여 허파, 간, 심장, 콩팥, 소화장기 및 전신 근육등 신체 여러 부위에 기생하기 때문에 심한 충, 출혈 증상을 보이며 특히 뇌에 감염시는 신경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이차적으로 다시 혈관내로 들어와 적혈구에 기생하며 이들 혈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심한 비혈 증상을 보여 전신 피부가 창백해지고 특히 닭 벼슬의 색깔이 붉은 색에서 연분홍으로 변하고 더욱 심할때는 거의 흰색을 나타내며 푸른 똥을 누면서 죽게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란중인 닭(특히 여름에 초산을 시작하는 닭)에서 폐사가 많고 10~20%이상의 산란 감소 등 피해가 나타난다.

2. 예방대책

○ 닭겨모기의 구제

- 닭겨모기가 이 병원충을 옮기는 중간숙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닭겨모기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 닭겨모기는 몸 길이가 1mm내외로 일반모기보다도 아주 작으며 낮에는 떠나 양계장 주위의 어두운 숲 그늘에 있다가 밤에 닭의 깃털속으로 파고 들어 피를 빨개되므로 여름철이 시작되면 양계장 주위의 물이 고인 곳과 계사 내외를 1주일당 1~2회 정도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유인등을 설치하여 닭겨모기를 구제한다.

- 특히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평소보다 살충제를 자주 뿌려준다.

○ 보충제 (保蟲雞)의 도태

- 이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닭은 이듬해까지 원충은 몸속에 지니는 보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 병에 걸린 닭이 있는 양계장에서는 이들 노계를 도태하여 다른 닭에 감염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 양계장 주위에 칠면조 및 오리 등의 사육을 하지 않는다.

○ 항원충제 투약

- 예방약제로는 사료첨가용 항콕시듐 약제의 일종인 스테노놀 등이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설파메톡시몰을 비롯하여 몇가지 설파제는 저농도 투약시 예방효과가 있고 또한 적당량을 투약할 때는 치료 효과도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들은 고농도 및 장기간 투약시 산란율 및 음수량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가금인플루엔자 검사확대

농림부는 올들어 경기, 전북, 경북지역의 종계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전국 종계장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 질병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지난 19, 20일 이틀간 전국 260개의 종계장에 대해서 수의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검사토록 했다.

지난 22일 농림부는 가금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가축위생검사소에서

농장별 3계군, 계군별 20수를 채혈해 이를 수 의과학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검물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양성일 경 우 현지조사 및 바이러스 시험으로 발생을 확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의심지역, 기발생 지역 인근 양계장, 중추사육농장과 미등록 중 계장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는 한편 사료희 사, 동물약품업체 판매망을 통한 질병발생정보 를 확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말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방역정책 방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농림부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관리 소재 종 계사육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전염 병의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이 충남 논산 소재 신기부화장으로 출하된 사실이 있다는 보 고가 있으니 해당 부화장과 동부화장에서 출하 된 초생추 입식농가에 대하여 수의과학연구소 의 협조를 받아 오염여부 확인검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다 음 -

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전두수 살처분 실시,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전준비
- 닭, 사료, 약품, 계분 수송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 실시
- 인근 양계농장에 대한 감염여부 확인시까지 발생농

장의 닭과 그 생산물의 이동(판매) 제한 및 출입차량과 출입자 소독철저

나. 방역대 설치

- 발생농장, 발생농장 반경 2km 이내 농장, 영천시 이외의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역대 설치 운영

다. 긴급방역대책반 편성운영

- 경북도, 영천시, 가축위생시험소 별로 방역대책반 운영

라. 관내 양계농장에 통보하여 유사증상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토록 지도·당부

- 관내 도계장 출하닭에 대한 검사강화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양계업계의 조기차단역 참여 협조강화

마. 농림수산부, 수의과학연구소 현지조사 업무협조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농림부는 지난 8일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돼 있어도 농가에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실가의 80%선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 상금을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혔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 기준 단가 고시

농림부는 지난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 고시

구분	공종	규격	단위	단가
1. 축사	우사	한육우사	원/m ²	121,000
		유우사	"	158,000
	돈사	번식돈사	"	195,000
		비육돈사	"	155,000
	계사	산란계사	"	99,000
		육계사	"	99,000
	간이축사	철재 (파이프 보온덮개형)	"	39,000
2. 가축입식	한우	송아지	원/마리	1,592,000
		육성우	"	1,877,000
	젖소	송아지	"	870,000
		육성우	"	1,756,000
	돼지	자돈	"	45,630
		육성돈	"	75,000
	육계	병아리	"	427
		중추	"	670
	산란계	병아리	"	553
		중추	"	1,700
	염소	자양(3개월령)	"	89,000
	토끼	새끼(육용종)	"	3,800
		새끼	"	664
	꿀벌	개량종	원/군	127,500

〈주〉

- 본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중 농업관련 시설물은 유사 피해시설의 단가를 적용하고, 가축은 피해 당시 새끼가축의 산지가격을 적용한다.
 - 가축의 육성 가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한우, 젖소 : 12개월령 이상 또는 250kg 이상
 - 나. 돼지 : 120일령 이상 또는 60kg 이상
 - 다. 육계 : 20일령 이상 또는 600g 이상
 - 라. 산란계 : 70일령 이상 또는 850g 이상
-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다.

계열화 사업자 요건 관리 강화

농림부는 지난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계열주체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열화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안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기본 골격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업통합, 실시요령 중 가축계열과 사업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계열주체들은 계열농가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중재 조직 구성 및 차년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당해년도 사업실적 파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 음 -

- 계열주체의 토지확보 등 자격요건 강화
- 계열주체와 농가와의 평등계약체결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열협의체 구성
- 계열주체의 연차별 장기계획 수립
- 계열농가에게 정부지원 연계
- 사업대상자 사전심사제
- 사후관리의 체계적 시행 및 관리 감독 강화

정부, O-157 특별대책반 구성 도축장, 단체급식처 등 위생관리 강화

집단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O-157 대장균이 국내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등 11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급식에 대한 안전관리와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진과 역학조사요원 등 4~5명으로 구성되는 O-157 특별대책반을 국립보건원에 두고 O-157에 의한 식중독 유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대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O-157이 가축내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날고기를 단체급식장의

메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의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도축장과 정육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검사와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이사회 개최**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김택일)는 지난 20일 협회사무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공식중이던 협회장에 톱밥제조기 전문 생산업체인 (주)풍림특장 대표인 김택 열씨, 수석 부회장에 심상무씨를 각각 추대했다.

또 동회는 직원총원, 축산기자재 토탈 시스템 구축,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해서는 이달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취임한 신입회장에게 위임 최종결정하였다.

**(사) 한국축산학회
사무실 이전 및 개소식**

(사) 한국축산학회(회장 한성욱)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회의 도약과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전 회원들에게 열린 학회가 되고자 지난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또한 동 학회는 지난 29일 사무실 개소식 및 리셉션을 가졌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 전화번호 : (02)581-0064
- 팩스번호 : (02)581-0065

**국립동물검역소
전화번호 변경**

국립동물검역소(소장 김옥경)의 전화번호가 7월 29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국립동물검역소 전화번호(본소)

대표전화 6500-600, 624 변경일시 : '96. 7. 29 00:00

부 서 별	일반전화		행정전화 (변경없음)	비고
	변경전	변경후		
소장실	653-5034	6500-601	223-4690	
부속실	—	6500-602		
사무과장실	653-5035	6500-603		
사무과	653-5040	6500-614	223-4691	
사무과(FAX)	653-5039	6500-620		
검역기획과장실	—	6500-631		
검역기획과	653-5630	6500-641	223-4692	
검역기획과(FAX)	652-9602	6500-668		
전산실	653-0202	6500-630		
전염병검사과장실	—	6500-643		
전염병검사과	653-5037	6500-647	223-4693	
위생검사과장실	—	6500-675		
위생검사과	648-5404	6500-670	223-4693	
국제검역정보과장실	—	6500-698		
국제검역정보과	653-5038	6500-691	223-4698	
(야간)당직실	653-5040	6500-615		